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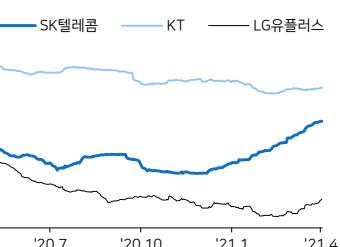
2021.5.3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1W	1M	3M	6M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KOSPI	-1.2	1.1	0.6	34.3	13.0	13.0	1.2	1.2	1.6	1.6	
통신업종	-3.1	6.8	19.6	31.6	10.4	10.4	0.8	0.8	3.7	3.7	
SK텔레콤	-3.5	8.0	23.9	41.2	11.3	8.7	0.9	0.9	3.4	3.5	
KT	-3.7	2.7	16.9	26.8	9.3	8.5	0.5	0.5	5.0	5.3	
LG유플러스	-0.4	7.3	7.8	17.9	8.8	7.6	0.7	0.7	3.6	3.9	
AT&T	0.0	3.1	10.1	14.9	10.0	10.0	1.3	1.3	6.6	6.5	
Verizon	0.9	-0.9	6.0	0.2	11.4	11.2	3.1	2.7	4.4	4.5	
T-Mobile	-0.9	3.5	0.2	19.7	46.3	37.5	2.4	2.3	0.0	0.0	
NTT	-1.4	-3.4	4.3	22.1	11.1	9.4	1.3	1.2	3.8	4.0	
KDDI	-2.0	-4.5	5.1	13.2	11.6	11.4	1.6	1.5	3.6	3.8	
Softbank	-2.1	1.0	15.5	47.6	4.4	19.6	2.2	1.9	0.4	0.4	
China Mobile	-0.9	1.9	7.7	7.1	8.0	7.7	0.7	0.7	6.7	6.8	
China Unicom	-1.5	1.8	1.4	-6.1	8.0	7.1	0.3	0.3	5.0	5.5	
China Telecom	1.9	0.4	17.2	10.5	8.3	7.9	0.5	0.5	5.0	5.2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SKT 39.5% (+0.2%p WoW, +1.7%p MoM)

KT 43.2% (+0.1%p WoW, +0.1%p MoM)

LGU+ 31.0% (+0.5%p WoW, +1.6%p MoM)

통신3사, 외국인 지분율 순매수 2주 연속 기록

2 업종 코멘트

전자 통합

4월 다섯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9%p 수익률을 기록하며 Underperform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는 공매도 재개 관련 이슈로 부진

큰 폭의 외국인지분율을 상승을 기록한 LG유플러스가 경쟁사 대비 Outperform

국내 기관은 KT, SK텔레콤, LGU+ 순매도. 외국인은 KT, SK텔레콤, LGU+ 순매수

금주 전망

금주는 6일 SK텔레콤 1Q21 실적 발표 예정

SK텔레콤 연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

통신 3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

국내 통신주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지속으로 2H21 긍정적 주가 전망 예상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5	26	27	28	29 Nokia 1Q21 실적발표	30	1
2	3	4	5	6 SK텔레콤 1Q21 실적발표	7	8

3 주간 뉴스

▶ 통신3사,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 제휴 동상이몽

(파이낸셜뉴스)

- 통신3사, 글로벌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에서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할 전망
- KT는 디즈니 플러스와 단순 콘텐츠 계약이 아닌 공동 합작을 통한 콘텐츠 제작 고려 중
- LG유플러스도 디즈니 플러스와 제휴 추진. SK텔레콤은 디즈니 플러스 대신 넷플릭스와 협력 고민
- ⇒ 올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약 15% 성장한 29억5,770만달러(3조3052억원) 규모 전망
- ⇒ 글로벌 OTT 사업자와 제휴는 통신3사의 인터넷(IP)TV 가입자 증가와 수익으로 직결될 것

▶ 에릭슨, 전세계 5G 특허 1위…매년 매출 17% R&D 투자 '결실'

(아이뉴스24)

- 에릭슨, 현재 세계 통신 장비 회사 중 가장 많은 5만 7,000개의 특허를 보유. 삼성 핵웨어가 그 다음
- 이를 토대로 전세계 5G 상용화와 관련한 136건의 계약 체결, 약 85개국에서 600만대 5G 장비 공급
- 에릭슨은 매년 전체 매출의 17%를 R&D에 투자, 현재 R&D 관련 인력은 2만 6,200명
- ⇒ 최근 에릭슨의 고객사인 SK텔레콤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노키아 장비를 에릭슨으로 교체
- ⇒ 노키아 장비의 성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에릭슨은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사와도 교체 진행 중

▶ SKT-미래벤처, 스파크플러스 650억 투자 눈앞

(더밸)

- SK텔레콤, 미래에셋벤처투자와의 스파크플러스 인수가 곧 확정될 전망. 거래 규모는 650억원 가량
- SK텔레콤은 스파크플러스 최대주주인 아주호텔앤리조트 보유지분 가운데 24.2%를 450억원에 매입
- SK텔레콤은 거점오피스 확보를 위해 투자 결정. 현재 을지로, 종로 등 지역에 거점오피스 운영 중
- ⇒ 스파크플러스의 이번 투자유치는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누적 투자유치금은 600억원
- ⇒ 스파크의 기업가치는 2,000억원으로 평가.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주관사로 선정해 IPO 준비 중

▶ KT, AI · 5G 앞세워 로봇플랫폼 사업 확대

(IT조선)

- KT, 인공지능(AI)와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통신 인프라 역량을 힘입어 로봇플랫폼 사업 확대
- KT 로봇 사업 핵심은 플랫폼, AI와 5G를 이용 B2B와 B2C에서 필요로 하는 로봇 서비스를 제공
- 향후 딜리버리, 케어 및 푸드테크, 물류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로봇을 단계적으로 선보일 계획
- ⇒ 글로벌 로봇 시장은 EV, 의료·헬스케어, 물류, 소매유통·식음료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 예상
- ⇒ 5G의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지원은 향후 로봇 분야에서 통신사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전망

▶ 정부, 올해 5G MEC에 400억원 투자... 표준화 추진

(ZD Net Kore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융합서비스 밸류과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올해 400억원 투입 계획
-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MEC 기반 5G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에 구축
- 추가로 올해는 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MEC 기반기술 상용화, 5G MEC 표준화 추진
- ⇒ 구체적으로 이번 구축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 ⇒ KT가 국방 분야 스마트캠퍼스, LG유플러스가 항만, 스마트시티, 스마트산단 등을 담당할 전망

▶ "미 통신업체 버라이즌, 애플 · AOL 매각 모색"

(연합뉴스)

-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온라인 포털 애플과 아메리카온라인(AOL) 등의 매각을 모색
- 매각에는 사모투자회사 아플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참여, 거래 가격은 40억~50억달러 수준
- 앞서 버라이즌은 모두 90억달러를 들여 2015년에 AOL을, 2017년에 애플을 각각 구매 후 합병
- ⇒ 현재 버라이즌은 C-Band 관련 투자 및 5G 무선 통신망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 소모가 예상
- ⇒ 이번 매각은 통신 본업에 대한 집중도 향상과 5G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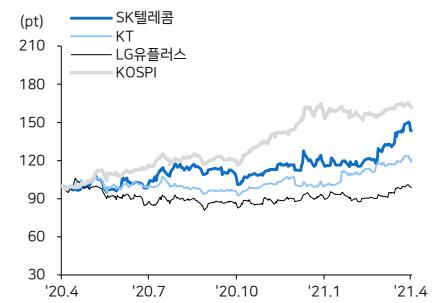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집계달력)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2021E	2022E	
한국	SK텔레콤	303,500	22.0	17.6	18.1	1.3	1.5	1.9	2.3	5.1	5.3	6.1	5.9	8.4	10.1
	KT	28,350	6.6	22.2	22.7	1.2	1.3	0.7	0.7	4.5	4.7	2.7	2.6	5.6	6.0
	LG유플러스	13,200	5.2	12.6	13.1	0.9	1.0	0.6	0.7	3.1	3.3	3.5	3.3	8.7	9.4
미국	AT&T	31.4	224.3	172.1	167.2	33.4	33.7	22.7	22.8	53.4	53.1	7.7	7.7	12.7	11.7
	Verizon	57.8	239.3	133.7	136.7	31.7	32.8	20.9	21.4	48.6	50.1	8.0	7.8	28.1	25.3
	T-Mobile	132.1	164.7	78.3	80.5	7.6	9.8	3.5	4.7	27.1	28.0	8.5	8.2	5.5	6.2
일본	NTT	2,755	98.3	108.8	109.8	15.3	15.4	8.4	9.7	29.0	29.3	5.8	5.7	10.8	12.7
	KDDI	3,306	69.7	48.5	49.1	9.6	9.7	6.0	6.1	16.1	16.1	5.2	5.2	14.6	13.8
	Softbank	9,885	189.0	51.8	53.3	30.0	13.7	34.2	7.6	50.0	24.4	6.2	12.6	38.9	12.3
중국	China Mobile	52.0	137.1	123.2	128.2	18.5	19.1	17.2	17.9	45.5	47.0	1.7	1.7	9.5	9.4
	China Unicom	4.5	17.7	49.3	51.9	2.1	2.4	2.2	2.5	15.1	15.8	1.0	1.0	4.3	4.8
	China Telecom	2.7	28.4	63.7	66.3	4.8	5.0	3.5	3.8	19.1	19.8	2.0	1.9	6.1	6.3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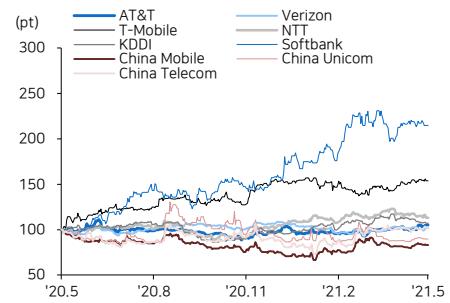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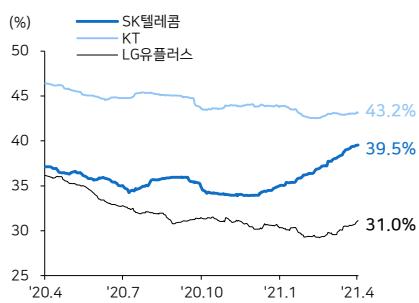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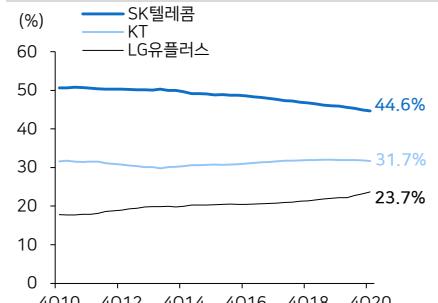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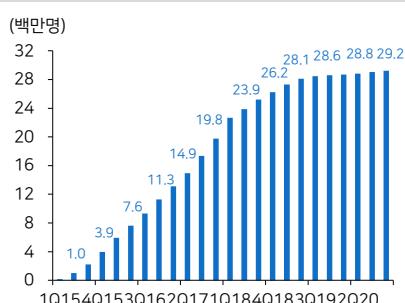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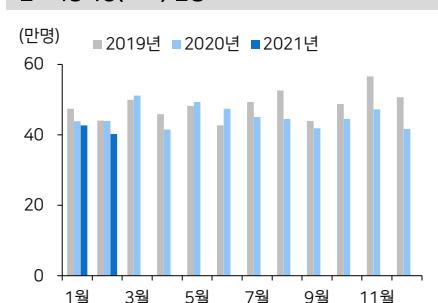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